

# “IMF 수준의 위기...애프터 코로나도 준비”

전 경기 중계 등 야구 산업화 장본인 “엄중한 시기...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리그도 바뀔 것 긍정성있는 리그로 품질 높여겠다”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마수에 KBO리그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KBO는 지금의 위기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위기를 타개할 소망수로 류대환 사무총장(57)을 재신임한 이유다. 류 총장은 이전부터 하향추세였던 현 주소를 ‘IMF 수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1월 취임한 정지택 KBO 총재는 임기가 끝난 류대환 사무총장의 연임을 원했고, 13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 류 총장은 1990년 KBO에 입사해 운영팀, 기획팀, 홍보팀을 거쳐 KBO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9년 2월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류 총장은 지금은 당면 시되는 전 경기 중계를 실현시키는 등 산업화에 기여하며 여러 성과를 내 KBO 사무국 내 신망이 두터운 것은 물론 구단들도 마케팅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사다.

14일 연락이 닿은 류 총장은 “축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엄중한 시국이라 부담이 크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류 총장과 일문일답.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중책을 다시 맡게 됐다.

“냉정히 말해 KBO리그는 이미 하향추세였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뿐이다. 스포츠산업의 기반이 아직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13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10개 구단의 재신임을 얻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중한 현안들을 먼저 언급했다. 류 총장이 스스로 밝힌 향후 최대 과제는 ‘브랜드 가치의 향상’이다. 스포츠동아DB

잡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연히 위기에 대응할 자본도 튼튼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시절처럼 큰 위기가 닥쳐온 것 같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물론 ‘애프터 코로나’에도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이 확립될 것이다. 자연히 위생에 대한 의식이 높고 다중

접촉을 피할 것이다. 사회 전반이 바뀔 텐데, 언택트 시대에 맞춰 KBO리그도 달라져야 한다.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선례가 없고, 누구도 ‘이게 맞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방향설정을 잘해야 한다. 지금부터 3년이 KBO리그의 10년 또는 그 이상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기로에 서있다.”

-만장일치 연임에는 성과에 대한 인정이 담겨있다.

“소셜미디어(SNS)가 급변하는 시대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주기도 갈수록 짧아진다. 영상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고 또 변할 것이다. 흐름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KBO 미디어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 가치 향상이다. 소비자는 KBO리그라는 브랜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흥미가 없다면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마케팅도 결국은 리그 품질이 올라야 한다.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마케팅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리그 품질 향상이라는 대명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KBO 차원에서 ‘스피드 업’을 강조했다지만 이제는 공정성을 언급하고 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 것이다. 합리적인 야구, 공정성 있는 리그가 된다면 팬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공정성은 단적인 예다. KBO는 물론 구단들도 모두 머리를 맞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 난 평생을 야구에 있었다. KBO리그를 사랑하는 한 명의 팬이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고영표 심재민

## 돌아온 KT 창단멤버 고영표-심재민 “이젠 강팀 5선발 경쟁...자극심 크다”

제대 이후 기다림...올시즌 그라운드 복귀 구슬땀

남성들 사이에선 ‘내 군 생활은 더디게 가는데 남들은 금세 전역하는 것 같다’는 시헛말이 있다. 군 생활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담긴 문장이다. KT 위즈 팬들에게도 지난 2년은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다. 창단 멤버 고영표(30)와 심재민(27)의 전역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이다.

고영표는 2017년부터 2년간 매해 140이닝 이상씩 소화하는 등 암흑기 KT의 토종 에이스로 활약했다. 심재민 역시 2015년부터 4시즌 동안 217경기에서 226.1이닝을 책임졌다. 같은 기간 팀 내 구원투수들 중 최다이닝 및 최다등판이었다. 이들은 나란히 2018시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팀을 떠났다. 그 사이 KT 지휘봉을 잡은 이강철 감독은 “(고)영표랑 (심)재민이가 도대체 언제 올라 싶었는데 어느새 전역을 했다”며 이들을 반겼다. 선발 경력이 있는 고영표는 물론 심재민도 잠재적 5선발 후보군으로 생각 중이다. 이들은 최근 수원KT위즈파크에 꾸준히 출근하며 몸을 만들고 있다.

고영표는 “즐겁고 행복하다. 아무리 군 복무 중 몸을 만들었다고 해도 구단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주위에서는 ‘몸을 잘 만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부족한 느낌”이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9월 소집 해제된 심재민은 2군에서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등 실전을 치렀기에 조금 더 준비가 빠르다. 심재민은 “고관절 통증이 한 차례 왔었지만 지금은 다 털어냈다”며 “은몸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중이다. 좋은 것밖에 없다. 뛰고, 던지는 건 물론 선전한 바람, 따스한 햇빛까지 모든 게 좋다. (지난해 여름) 선수들이 ‘폭염으로 힘들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조차 부러웠다”고 밝혔다.

둘 모두 TV로 KT의 경기를 매일 같이 챙겨봤다. 이들이 땀 흘리지만 해도 매년 하위팀이었던 KT는 이 감독의 부임 후인 2019년 창단 첫 5할 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첫 포스트시즌(PS) 진출에까지 성공했다. 심재민은 “너무도 부러웠다. 나 역시 올해 바로 PS에 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고영표 역시 “중계를 보면서 ‘내가 왜 저 순간에 함께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을 강하게 느꼈다. KT는 이제 강팀이 됐다. 그 안에 속해있진 않았지만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다”며 동료들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

입대도, 기다림도 언제나 ‘함께’였지만 이제는 잠재적 5선발 경쟁자다. 고영표는 “선발로 뛰면서 내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설령 시즌을 선발로 시작하더라도 언제든 불펜으로 보직이 바뀔 수 있다. 일단 보직을 떠나긴 이닝을 소화하는 몸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민도 “사실 이전부터 선발 전향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들었다. 하지만 내가 번번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땀을 기대하기보단 내 스스로 선발로서 갖춰야 할 체력, 제구, 톱폼 등을 갖추는 게 먼저다. 자신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익래 기자

## ‘최고령 야수’ 이성우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LG)

불혹의 나이...올시즌 후 은퇴 의사 “LG에서 지금이 인생 최고의 순간”

30대 중후반인 베테랑의 머리에서 ‘은퇴’라는 단어는 쉽사리 떠나지 않는다. 늘 각오하고 있지만 구단의 칼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어 닥칠지 모른다. 시즌을 앞두고 머리 은퇴를 선언하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승엽, 박용택, 이호준 등 KBO리그 전설들에게만 허락된 게 ‘예고 은퇴’다.

KBO리그 최고령 야수 이성우(40·LG 트윈스)는 올 시즌 후 은퇴 의사를 밝혔다.

2017년부터 매년 ‘마지막’을 머리에 두고 뛰었는데 이제는 그 뜻을 확실히 굳혔다. 2018시즌 후 SK 와이번스에서 방출될 때 손을 뻗어준 LG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각오다. “야구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시작은 단역이었다. 조연을 꿈꾸기도 힘들 듯했다. 하지만 버터내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쳤다. 올해로 프로 21년차, 커리어 내내 ‘수비 원툴’ 백업으로 분류됐지만, 통산 7홈런 중 지난해 3홈런을 때려내는 등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5월 27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선 생애 첫 만루홈런까지 터트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LG 내무에선 4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선배 박용택에게 타격에 대한 질문을 구하는 등 야구를 대하는 태도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긴다. 이성우는 “여러 팀을 옮겨며 야

구를 했는데 지금 LG에서의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인 것 같다”며 “주장인 (김)현수가 우리를 최고로 이끌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언제나 미안함이 앞선다.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느 날 “아빠가 야구선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아버지로서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단역에서 조연, 그리고 때로는 주역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그를 보며 아이들도 마음을 바꿨다. 이성우는 “TV에 나오는 아빠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행복해 하는 아이들 덕에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올해 잘 마무리한 뒤 친구 같은 아빠로 돌아가 추억을 많이 쌓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LG 포수 이성우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역에서 조연, 그리고 때로는 주역으로 비중을 높여온 그는 당당하면서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 남은 1년을 활활 불태울 각오다. 스포츠동아DB

## “외인 입국을 앞당겨라”...스프링캠프 합류 10개 구단 특명

KBO리그 10구단은 비활동기간이 끝나면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전지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 구단 모두 국내에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이런 가운데 각 팀은 외국인선수들의 입국일 확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외국인선수들이 각 구단의 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선 16일까지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 그레야 2주간의 자

가격을 마친 뒤 2월 1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취업비자 발급 때문이다. 비자가 있으면 구단이 별도로 마련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지만, 비자 없이 입국하면 방역방국이 지정된 시설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한다. 국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를 거치면 아무래도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10개 구단은 미국 등 외국인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각 나라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비자 발급절차가 종전보다 까다로워졌고, 실제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시일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게 구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몇몇 구단은 선수들이 16일 이후 입국할 경우에 대비해 캠프지 인근에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전망

자가격리 2주 고려 시기 앞당겨 초반 컨디션 조율·부상 등 염려

이어서 외국인선수 관리의 각 팀의 시즌 성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스프링캠프 합류가 늦어지면 지난해처럼 시즌 초반 컨디션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부상을 당하는 외국인선수들이 나올 수 있음을 10구단 모두 인지하고 있다. 이에 각 구단은 이른 시일 내로 외국인선수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분위기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